

임실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4억원 들여 아스콘덧씌우기 사업 시행

임실군이 노후화 된 관내 군도에 대한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군은 주요도로 중 요철이 심하고 노면이 불량한 도로에 대해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업구간은 군도 6호선 외 6개노선 4km로써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인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구간이 그간 버스기사 및 주민들의 민원이 잦았던 곳으

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통해 운행 불편사항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군은 임실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차선도색,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군은 군도·농어촌도로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선형개선사업을 통해 교통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안전사고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최근 사고발생율이 매우 높아 구조 개선이 시급한 정음면 구교에서 운압면 선거리간 도로의 선형개선 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군은 이 도로개설이 마무리되면 사격장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을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도로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환경 개선과 신속한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가향식품, 블루베리 옛·스티크형 조청 특산품 시동

'쌀 가공식품산업 대전' 서 호평... 스웨덴 프리프럼푸드엑스포 홍보키로

순창 가향식품의 블루베리 옛과 스틱형 조청 제품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서울 컨텍스에서 열린 '2018 쌀 가공식품산업대전' (RICE SHOW)에서 국내·외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순창을 대표할 특산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가향식품(대표 성장아)이 개발한 블루베리 옛과 스틱형 조청은 전라북도 및 순창군이 추진하는 향토건강명품화사업에 통한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됐다. 우리 고유의 옛에 순창의 대표 특산품인 블루베리를 발효한 액상을 분말화해 가미해 청량감 있는 블루베리의 풍미를 한껏 살리고 매력 있는 색깔도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틱형 조청은 맛은 뛰어나지만 섭취와 보관이 불편하다는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다. 조청의 탈곡함을 더하고 소포장으로 설당을 대신한 조미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당당(堂堂)'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번 제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쌀 가공식품협회 주관으로 열린 국내 유일의 쌀 가공식품 종합전시회에서 국내 바이어는 물론 외국바이어



순창 가향식품의 블루베리 옛과 스틱형 조청 제품이 '2018 쌀 가공식품산업대전' (RICE SHOW)에서 국내·외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들의 인기를 끌었다. 가향식품은 이번 박람회에서 쌀가공식품협회의 유통망 확충에 대한 지원도 이끌어 냈다. 가향식품 성장아 대표는 "스웨덴에서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개최되는 프리프럼푸드엑스포에 참가해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번 전시회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순창의 맛과

기술이 담긴 당당(堂堂) 제품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측도 이번 전시회가 그동안 고추장 된장 등 장류제품에 집중된 순창의 특산품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재해위험 큰나무 제거

순창군에서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재해위험수목인 큰나무를 제거사업을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주택인근에 있는 노목이 태풍등으로 도복되어 주택파손은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2015년부터 순수 군비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년간 사업비 9,500만원을 투자

하여 380세대 410주를 제거했고 올해는 11개읍면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신청을 받아 98가구 인근의 위험수목 200주 제거사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주택인근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에서는 지난 5일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아 "임실군어린이민속큰잔치"가 오수외견공원에서 열렸다.

어린이 날 맞아 체험행사 다채

임실군, 오수외견공원에서 1,000여명 참석

임실군에서는 지난 5일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아 "임실군어린이민속큰잔치"가 오수외견공원에서 열렸다. 올해 26회째인 임실군 어린이 민속 큰잔치에 1,000여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석하여 풍성한 놀거리와 볼거리, 재밌는 체험거리로 가족 축제의 장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댄스팀 공연과 마술쇼, 액퀴즈, 보물찾기, 장기자랑 등 가족이 함께하는 명랑운동회도 진행됐다. 특히 대형물놀이, 제기차기, 페이스페인팅, 요술풍선 등 총15가지 체험에 참여하면서 손목피에 스탬프를 받아온 어린이에게는 누구보다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매년 어린이날을 맞아 열리는 어린이 민속 큰잔치는 해를 더해 갈수록 다양한 민속놀이와 체험행사로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군은 어린이날을 전후해 지역민은 물론 타지역 관광객까지 임실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어 군과 더이어나가는 한마당잔치로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심민 임실군수는 "어린이 여러분은 내일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주인이다"며 "가족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남원용성고 공모 선정

남원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후계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2018년도 농업계고등학교 실습장 지원 공모사업에 남원용성고등학교를 공모 신청해 심사에 적극 대응한 결과 전국 14개 학교중 3개학교 최종 선정됨으로서 용성고등학교의 오랜 숙원사업인 다목적 6차산업 체험 실습장을 금년 말까지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실습장 조성사업은 총 5억원(국비 4.5억, 시비 0.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 용성고등학교 내에 있는 노후 온실(1997년 신축)을 철거하고 첨단스마트온실을 신축하여 학생은 물론 지역 농업인들의 체험 실습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후계농업인력 양성의 요량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용성고등학교에서는 그동안 학교내

에 첨단실습장이 없어 이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외부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함과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관련학과 신입생 모집에도 애로를 겪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농업계고등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은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고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초교육 인프라 개선 필요에 따라 2012년부터 자영농고,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시설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2015년도에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 지원(국비 5억원) 이후 2번째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 치매인지증진 프로그램 호응

임실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팀이 추진한 요양기관 치매인지증진 프로그램이 주민과 가족들의 큰 관심과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 국가 책임제 일환으로 진행된 치매인지증진 프로그램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3월 15일을 시작으로 5월 3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삼계 안나 사랑요양원 및 삼계 후천마을 주민 50여명과 함께 요양기관 치매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고위험군 및 치매환자 등 지역주민들에게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군은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798백만원을 들여 임실군보건의료원 부지에 치매안심센터 350㎡를 신축을 준비중이다. 또한 작년 12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단을 구성하고 65세 이상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76명의 치매환자를 등록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완료

순창군이 추진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순항하면서 주민 건강 증진을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군은 올해 총 100가구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약 3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슬레이트는 지붕, 천장, 내장, 외장 등에 사용되며 시설 노후화와 함께 가루 상태로 대기중으로 퍼져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군은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 3억 3600만원을 투입한다. 군은 지난해 3월 대상자 100명을 확정했으며 현재까지 26가구에 대해 철거를 완료해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 중에 있다. 나머지 74가구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학순 환경수도과장은 "매년 100여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아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철거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순창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